

일본지역

■ 2005년도 일본의 중점 통상전략 내용

□ 2005년도 경제산업정책수립관련 기본인식

- 일본 경제는 민간수요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지속 중에 있고 최근에는 회복세가 중소기업, 지역경제에도 서서히 과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규모, 업종,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완만한 디플레이션 경향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세계화의 진전과 국제경쟁 격화, 에너지/환경관련 제약의 심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 정부(경제산업성 소관)는 작금의 경기회복세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 경제사회의 새로운 발전을 지속 추구하는 것이 경제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2005년도의 통상정책의 중점 및 시책 내용]

- 2005년도의 경제산업정책은 크게 나누어 ① 신산업 창조 전략(로봇, 콘텐츠 등 7대 산업분야)을 중심으로 하는 이노베이션 창출, ②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재건, ③ 아시아경제권의 구축 등 전략적인 통상정책의 전개, ④ 에너지환경정책의 추진 등 4대 중점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가운데 특히 통상정책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FTA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지역경제권과의 연계 강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최대의 특징임.

□ 아시아경제권의 구축 등 전략적인 통상정책의 전개

- 중국, ASEAN 등 동아시아의 두드러진 경제발전, 일본경제와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연계협정(EPA, 포괄적 FTA 개념) 등으로 무역투자관계를 한층 더 활성화시키고, 긴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적재산제도, 기준인증제도, 무역관리제도 등 제반 제도면의 공통 기반을 구축, 동아시아지역의 성장력을 일본경제의 활력으로 연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장래에는 동아시아전역을 인적/물적/자본/서비스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비즈니스권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WTO 도하라운드의 교섭 틀의 합의에 입각, 무역투자의 자유화·원활화 가속에 전력하면서 WTO 룰의 전략적인 활용을 추진할 계획임.

□ 동아시아 비즈니스권 구축

- 경제연계협정(EPA)추진
 - 현재 교섭중인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과의 EPA교섭을 추진
 - 한국 : 2005년중에 실질적인 합의를 지향
 -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 가급적 조기에 실질적인 합의 지향
 - ASAEAN 전체 : 2005년초에 교섭 개시
- 동아시아지역의 인프라정비 및 각종 제도 구축 지원
 - 동아시아지역과의 무역투자환경 정비를 위해 인프라정비를 추진, 지적재산, 기준인증, 물류, 환경, 省에너지, 산업인재육성 제도 구축을 위해 자금과 기술 협력 연계를 강화하면서 중점적인 지원을 실시
 - 개발도상국 民活사업환경정비사업 7.4억엔(2005년도 예산)
 - 무역투자 원활화지원사업 위탁비 13.1억엔(상동)
 - 선도적 무역투자환경정비 실증 사업 15.8억엔(상동)
- 국제안전보장무역관리체제의 강화 :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등 안전보장무역관리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인재육성 등을 통한 아시아지역의 수출관리제도의 정비 지원 및 아시아제국과의 연계에 의한 우회수출의 방지 등 국제무역 관리 체제의 강화

□ WTO 도하라운드의 추진과 WTO 룰의 전략적 활용

- 시장억세스 개선과 룰의 강화 : WTO 도하라운드에 대해서는 2004년 7월의 교섭을 위한 기본 틀 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2005년 12월의 홍콩각료회의에 대비, 시장억세스의 개선과 룰의 강화를 조화 있게 추진
- AD 룰, 상계관세제도 등의 적절한 활용
 - AD 룰, 상계관세제도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공정한 무역을 추진
 - 이와 더불어 일본기업의 해외시장에 있어서의 분쟁, 트러블 등에 대해 적절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

□ 국제표준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관여 및 추진

- 중요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ISO 신규제안 증대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일본 주도의 국제규격 획득 확대를 지향

□ 지적재산권의 차질 없는 보호와 활용

- 영업비밀의 누설, 의도하지 않은 기술 유출의 방지
- 모방품, 해적판대책의 강화 : 모방품, 해적판 피해관련 정부의 일원적 상담창구를 설치, 피해 실태 파악 및 개선사항 정리, 아시아제국에의 모방품 대책 강화 촉구 등

□ 콘텐츠산업의 진흥

- 국제거래시장의 창설, 해외진출 촉진, 인재육성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프런티어 확대, 구조개혁 추진으로 콘텐츠시장 규모를 확대(2001년 11.3조엔→2010년 16.5조엔)

□ 對日 직접투자 유치 촉진

- 對日 직접투자 보증계획에 의거 2006년말까지 對日직접투자 잔고를 보증시키기 위해 지자체에 의한 외국기업 유치활동의 지원 등 추진 (2005년도 예산 17억엔)

(문의처 : 도쿄무역관 신태철 stc69@kotra.or.kr)